

증식성 위용종에서 발생한 고분화 선암 1예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내과, 해부병리과*, 서울백병원 내과*

이상은*, 김경아, 이우진, 이준성, 전영빈, 김한성*, 이정환*, 김유선*, 문정섭*

배경 : 위용종은 위장에 흔한 양성 신생물로서,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크게 증식성(hyperplastic) 용종과 선종성(adenomatous) 용종으로 분류된다. 그 중 증식성 용종은 위용종의 약 75%-85%를 차지하며, 아직 정확한 병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염증성 변화에 대한 점막 재생으로 위상피세포가 증식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대개 이형성(atypia)은 없다. 따라서 증식성 용종에서 선암의 발생빈도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최근 증식성 용종의 표면에서 발생한 고분화 선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75세의 여자환자가 종합검진으로 시행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에서 위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환자는 무증상이었고, 신체 검진, 검사실 소견에서 경도의 빈혈(Hb 11.1 g/dL)외에 특이 소견 없었다.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에서 전정부 전벽에 약 3.0 cm크기의 짧고 굵은 경(stalk)을 가진 분엽성의(lobulated) 용종과 전정부 후벽에 약 1.0 cm크기의 무경성의 원형의 용종이 관찰되었다. 각각 내시경적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현미경적 소견은 전정부 전벽의 크기가 큰 용종에서는 증식성 용종에 선암이 동반되어 있고, 선암은 점막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절제면에 암세포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 전정부 후벽의 크기가 작은 용종에서는 점막 일부에 선종(adenoma)을 동반한 증식성 용종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용종 절제술 후 합병증이 없이 퇴원하여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위장관 출혈을 일으킨 위장관 간질종양 2예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내과 김영대*, 서정균, 김병수, 장성중, 허광식, 조은택, 박찬국, 김만우

증례1) 61세 여자환자가 내원 10일전부터 흑색변을 보여 내원하였다. 이학적 소견상 내원 당시의 혈압은 100/70mmHg, 맥박수는 분당 90회, 호흡수는 분당 28회, 체온은 36.8℃이었다. 결막은 매우 창백하였고 직장 수지 검사상 흑색변이 관찰되었으나 비위관을 통한 검사상 출혈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 당시 말초혈액 검사상 Hb 6.0g/dL, Hct 19.5%로 심한 빈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증례2) 59세 남자환자가 내원 당일 발생한 혈변배설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환자는 내원 5년 전 위장관 출혈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었으며 이학적 소견상 내원 당시의 혈압은 90/50mmHg, 맥박수는 분당 120회, 호흡수는 분당 30회, 체온은 37.3℃이었다. 결막은 창백하였고 직장 수지 검사상 혈변배설이 관찰되었으나 비위관을 통한 출혈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 당시 말초혈액 검사상 Hb 8.1g/dL, Hct 25.3%로 빈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증례 2예의 환자의 위장관 출혈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대장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혈흔 등의 출혈 흔적은 관찰되었지만 출혈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혈변배설과 흑색변을 보여 이에 적절한 주사를 시행하였으며 방사선 동위원소 표지자 적혈구의 축적이 우측 하복부 주위에서 관찰되어 출혈의 병변으로 의심되었다. 이에 상장간막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매우 혈관 분포가 높으면서 비정상적인 혈관이 분포하며 변연이 명확한 종양이 관찰되었다.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되면서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2예 모두에서 약 3 × 3 cm정도의 혈관 분포가 많고 비교적 주변과 경계가 명확한 종괴가 공장에서 관찰되었다. 현미경 소견상 많은 수의 방추형세포들이 서로 엮히거나 소용돌이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비정상적인 유사분열은 관찰되지 않았고 핵의 이형성도 보이지 않는 간질종양으로 진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만약 위장관 출혈을 하고 있는 환자에서 일반적인 검사방법으로 병변을 찾아내는데 실패한 경우 위장관 출혈의 원인으로 장관내의 기질 종양에 의한 출혈을 의심해보고 이에 의한 출혈이 의심되어지면 반드시 적혈구 주사 및 상장간막 혈관조영술을 시행해야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